

January 12 나태 이기기, 사랑과 신실함으로

- 출애굽기 3장

나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매튜 폭스는 게으름을 이기는 방법은 ‘부지런해지자는 결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꽃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불꽃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내면에 소명의 불꽃이 다시 일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도망하는 자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은사를 펼치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되면 삶에 생기가 돋습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나를 붙잡고 늘어지던 과거의 망령들이 사라지고(출 2장),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되찾습니다.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게으름으로부터 일탈이 시작됩니다. 일탈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헌신’(獻身)은 드릴 ‘헌’(獻)에 마음 ‘심’(心)자가 아닌 몸 ‘신’(身)자를 씁니다. 즉 헌신이란 말이나 마음이 아니라 땀을 흘리는 수고입니다. 게으르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신실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한 걸음씩’입니다. 평생 기도는 ‘오늘’ 새벽기도에서부터 시작되며, 평생 거룩은 ‘오늘’ 작은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オス왈드 챔버스는 《거룩과 성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순수한 일상의 행동을 요구한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도록 하며 그것을 실천하도록 이해시킨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행한 선한 행동들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뿐이다.” 나태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사명을 꾸준히 행할 때 이겨 낼 수 있습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❶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❷ 오늘, 지금, 여기서 시작할 일은 무엇입니까?